

거룩한 숲을 꿈꾸며 가장 작은 씨앗을 심는다

(이사야 61:1-4)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의 땅 인도네시아로 다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는 선교지가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고 제 작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애끓는 구원 열정에서 시작됩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과 다양한 민족, 아름다운 자연을 품은 다채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깊은 갈증과 아픔이 숨어있습니다. 종교적 테두리와 문화적 장벽 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해 영적 목마름에 신음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소외와 가난으로 마음이 상하고 간혀버린 영혼들이 사방에 존재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부모를 잃거나 방치되어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입니다.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많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빛을 잃은 아이들의 텅 빈 눈을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이 밀려옵니다. 연약한 생명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황폐하고 무너진 곳에서 작고 슬픈 영혼들을 찾아가 그 아픔을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이 한국 땅에도 작고 단단한 복음의 씨앗 하나가 심겨 지금의 푸르고 울창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었습니다. 절망의 땅에 십자가 보혈이 흐르자 교회와 학교,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영혼들이 주님의 손길을 힘입어 신실한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마침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먼저 주신 생명의 빛을 안고 이제는 땅끝을 향해 이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와 영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

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포로 된 자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며,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언제나 가장 어둡고 소외받은 영혼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은 힘이 없으면 외면하지만, 주님은 길가에 버려진 작고 슬픈 영혼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친히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혈의 손길로 찢긴 마음을 싸매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재를 털어내어 은혜의 화관을 씌워 주십니다. 근심으로 신음하는 영혼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온전히 세워가십니다. 선교지의 연약한 아이들이 당장은 꺾일 것 같은 조그만 묘목처럼 보일지 모르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햇살이 비추면 메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적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대목으로 자라납니다.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자라난 이들은 자기 하나의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대대로 무너진 삶의 터전과 공동체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던 상처 입은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만나 거룩한 재건자로 일어서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회 속에 공의와 사랑을 세우는 리더로 거듭납니다. 과거 고 한경직 목사님도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복음을 만나고 약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상처받은 어린 생명들을 돌보는 월드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시대를 깨우는 거목으로 자라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작은 아이들 속에서 이 거룩한 재건의 역사를 꿈꾸고 계십니다.

제가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 생명을 쏟고자 하는 핵심 사역은 유치원 사역과 고아원 사역, 밀림 마을 돌봄 사역입니다. 유치원 사역은 배움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고 하늘

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사역입니다. 세상의 때가 묻기 전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사랑의 말씀 한 구절은 평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영적 뿌리가 됩니다. 고아원 사역은 부모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한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빵 한 조각을 넘어 상한 마음을 십자가 사랑으로 싸매어 주는 사역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이 친히 심으신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며, 훗날 무너진 땅을 다시 일으킬 거룩한 재건자들입니다.

깊은 밀림 속 사역은 약품 하나가 없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당장 해열제 한 알이 없어 밤새 아이를 안고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통곡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밀림 돌봄 사역은 약품을 건네는 일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잊지 않으셨다는 십자가 위로와 생명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오랫동안 절망에 매여 있던 그 땅이 복음 안에서 소망의 땅으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인도네시아 땅에 유치원 사역의 거룩한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숲의 환상은 먼 꿈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기도로 함께 일구어가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성도님들의 이름 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팔랑카라야의 황폐한 땅에 떨어진 생명의 씨앗들이 소망의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8월 13일 유치를 함께 지을 동역자들과 함께 모든 영적 준비를 마치고 다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현실이 척박하고 넘어야 할 영적 태산이 높을지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심는 가장 작은 씨앗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의의 나무가 되고 인도네시아 온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거룩한 숲을 이루는 그날까지, 성도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도가 그 땅에 늘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